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사슬동사(serial verb)의 한영 번역  
패턴 분석



201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이 은 정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사슬동사(serial verb)의 한영 번역  
패턴 분석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이 은 정

# 이은정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2월 22일



주 심 영어학박사 배 재 덕 (인)

위 원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 목 차

Abstract .....	iii
제 1장 서론 .....	1
제 2장 이론적 배경 .....	4
2.1 한국어의 사슬동사 .....	4
2.2 사슬동사의 동사연결 구성 .....	6
2.2.1 보조동사 구성 .....	6
2.2.2 합성동사 구성 .....	10
2.2.3 접속동사 구성 .....	11
제 3장 한국어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패턴 .....	13
3.1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 패턴 .....	13
3.2 동사연결 구성별 번역 패턴 .....	17
3.2.1 보조동사 구성 .....	17
3.2.2 합성동사 구성 .....	27
3.2.3 접속동사 구성 .....	34
제 4장 결론 .....	42
참고문헌 .....	44

## 표 목 차

<표 1> 한국어 사슬동사의 번역 패턴 및 빈도 .....	15
<표 2> 보조동사 구성의 번역 패턴 및 빈도 .....	17
<표 3> 합성동사 구성의 번역 패턴 및 빈도 .....	27
<표 4> 접속동사 구성의 번역 패턴 및 빈도 .....	35



An Analysis of Korean to English Translation Patterns  
of Serial Verbs

Lee, Eun J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of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serial verbs. For this, 150 serial verb sentences from Shin Kyung-sook's Korean novel, 『Please Look After Mother』, were used to study how to translate Korea into English in the translation. In expectation of an influence of the properties of two verbs( $V_1$ ,  $V_2$ ), Korean serial verbs were divided into three types: 'Compound verbs', 'Auxiliary verbs', and 'Conjunctive verbs'.

As a whole, there were three translation patterns: 'translating only one verb', 'translating all of two', and 'using the third expression'. Among them, 'translating only one verb' was the most frequent pattern. In addition, when three types of Korean serial verbs were considered, 'Compound verbs' and 'Auxiliary verbs' were translated using the 'translating only one verb' pattern the most. On the other hand, 'Conjunctive verbs' required 'translating all of two' the most because it seems that two verbs of that type have independent meanings respectively in the serial verb.

Moreover, these three patterns could b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form and features of translation. First, 'translating only one verb' was classified into three subtypes: 'translating into a verb', 'paraphrasing', and 'translating into an adverb'. Second, 'translating all of two' was subdivided into five subtypes: 'translating into two verbs', 'translating one verb into an adverb or a preposition', 'paraphrasing one verb', 'expressing the meaning of an auxiliary verb', and 'using a prefix'. Third, 'using the third expression' was divided into three subpatterns: 'using the third verb', 'paraphrasing', and 'changing a part of speech'. Furthermore, when three types of Korean serial verbs were considered, unique subpatterns, which the other types didn't have, were found in each type of Korean serial verb.





## 제 1장 서론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로 구성된다. 그러나 아래 (1)과 같이 하나의 문장에 두 개 이상의 동사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이봉선 2004).

- (1) a.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다.  
b. 아내는 종일 그 꽃을 달고 다녔다.

예문 (1a)에서 동사 '잡아먹다'는 '잡다'와 '먹다' 두 동사가 연결어미 '-아'에 의해 연결되어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간주된다. 예문 (1b)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달고 다니다'는 '달다'와 '다니다'가 연결어미 '-고'에 의해 연결된 형태로 일련의 하나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러한 동사를 사슬동사(serial verb)라 한다. 세계의 여러 언어에서 사슬동사가 발견되는데 특히, 한국어의 사슬동사는 예문 (1a)와 (1b)처럼 '선행동사(V<sub>1</sub>) + -어/아 + 후행동사(V<sub>2</sub>)' 또는 '선행동사(V<sub>1</sub>) + -고 + 후행동사(V<sub>2</sub>)'의 구조<sup>1)</sup>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어미 '-어/아'에 의해 연결된 사슬동사만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한국어의 사슬동사를 영어로 번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동사를 항상 그대로 번역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한 동사만을 나타내면 되는지 등의 의문이 생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 이영현(2005)은 사슬동사는 [V<sub>1</sub> + 어/고 + V<sub>2</sub>]구조를 갖는 경우이며 의미상으로는 두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는 동사로 보았다.

- (2) a. 너는 그의 팔을 침대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p. 268)  
b. 그러면서 네가 다시 물을까봐 아버지는 얼른 눈을 감아버렸다.  
(p. 266-267)

위의 예문 (2a)와 (2b)는 신경숙(2009)의 한국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두 예문이다. (2a)의 동사 ‘내려놓다’는 ‘내리다’와 ‘놓다’ 두 동사가 연결어미 ‘-어’에 의해 결합한 사슬동사이다. 그리고 (2b)의 동사 ‘감아버리다’는 ‘감다’와 ‘버리다’ 두 동사가 연결어미 ‘-아’에 의해 결합된 형태이다.

두 사슬동사는 어떻게 번역되었을까? 본 소설의 영어번역물인 김지영(2012)의 *Please Look After Mother*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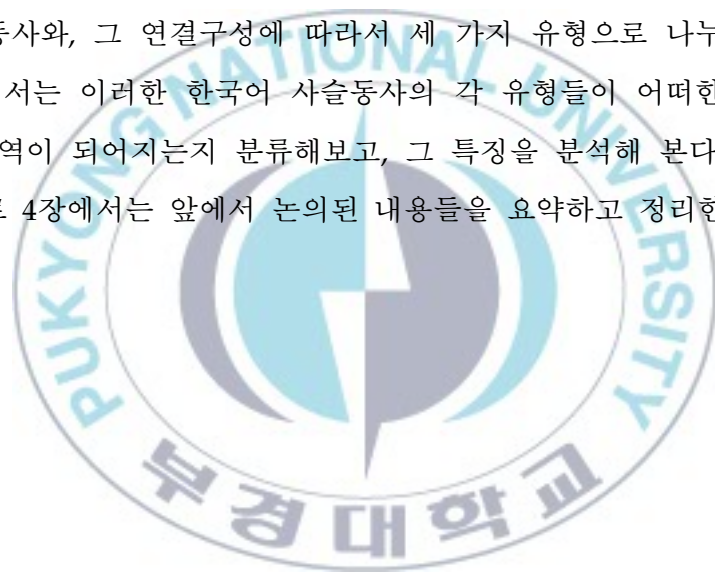
- (3) a. You **took** his arm and **rested** it gently on the bed. (p. 247)  
b. And, worried you would continue to question him, he quickly **closed** his eyes. (p. 246)

예문 (3a)에서 한국어 ‘내려놓다’는 ‘take’와 ‘rest’ 두 동사로 번역된 반면, (2b)의 ‘감아버리다’는 (3b)에서 ‘close’ 동사만으로 번역되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슬동사의 두 동사가 항상 모두 다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번역이 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사슬동사가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패턴으로 번역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슬동사의 두 동사 중 한 동사만 번역하는 경우와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번역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번역패턴과 그 빈도를 조사해볼 것이다. 또한 사슬동사를 이루고 있는 두 동사의 특성과 연결구성이 번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 연결구성에 따라 사슬동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사슬동사가 잘 발달되어 있는 신경숙(2009)의 한국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이하 ‘엄마’로 약함)』와 그 영어번역물인 김지영(2012)의 *Please Look After Mother*(이하 ‘Mother’로 약함)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 소설의 처음부터 사슬동사 예문 150개까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번역패턴을 조사·분석해 본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한국어의 사슬동사와, 그 연결구성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사슬동사의 각 유형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한영 번역이 되는지 분류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 제 2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어의 사슬동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2.1에서 한국어의 사슬동사에 대해 살펴보고, 2.2에서 사슬동사의 동사연결 구성에 따라서 ‘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다.

### 2.1 한국어의 사슬동사

‘사슬동사’는 하나의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동사<sup>2)</sup>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동사를 말한다. 다음의 한국어 사슬동사 예문을 살펴보자.

- (4) a. 영희는 감자를 구워먹었다.
- b. 그 아이는 엄마를 찾아다녔다.
- c. 철수는 그 편지를 들고 뛰었다.

예문 (4a)의 ‘구워먹다’는 ‘굽다’와 ‘먹다’ 두 개의 동사가 연결어미 ‘-어’에 의해 결합된 한국어의 사슬동사이다. 그리고 (4b)의 서술어 ‘찾아다니다’

---

2) 동사는 사물의 ‘움직임을 주로 과정적으로 표시’하는 품사이다.

- a) 동생이 책을 읽는다.
- b) 동쪽에서 해가 쬐는다.

a)와 b)의 ‘읽는다’와 ‘쬐는다’는 주어 명사구인 ‘동생’과 ‘해’의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파악하여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동사로 본다. 이러한 의미상의 특성 외에도 기능 면에서 동사 검증의 틀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 어찌한다’와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어찌한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고영근·구본관 2008: 93).

다'는 '찾다'와 '다니다'가 연결어미 '-아'에 의해 연결된 사슬동사이며, (4c)의 '들고 뛰다'는 두 동사 '들다'와 '뛰다'가 연결어미 '-고'에 의해 연결된 사슬동사구문이다.

이영현(2004)은 한국어의 사슬동사는 '선행동사(V<sub>1</sub>) + -어/아 + 후행동사(V<sub>2</sub>)' 구조를 갖는 경우와 '선행동사(V<sub>1</sub>) + -고 + 후행동사(V<sub>2</sub>)' 구조를 갖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슬동사에 관한 논의<sup>3)</sup>는 크게 몇 가지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국어 사슬동사에 관한 논의는 이들의 범주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논의 역시 극히 제한되고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문 (4)와 같이 한국어의 'V<sub>1</sub><sup>4)</sup> + -어,아/고 + V<sub>2</sub>' 구조를 갖는 서술어를 사슬동사로 간주하고, 그 중에서도 연결어미 '-어,아'로 결합된 사슬동사의 번역 패턴만을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3) 첫째, 최현배(1971), 김석득(1992), 남기심·고영근(1993), 서정수(1996) 등에서는 V<sub>1</sub>을 분동사, 그리고 V<sub>2</sub>를 보조용언(조동사)로 간주하여 이들 구조를 '동사구(verb phrase)'로 분석하였고, 둘째, Yang, In-seok(1978) 등은 이들 구조를 '복합동사(complex verb)'로 간주하여 V<sub>1</sub>과 V<sub>2</sub>의 각기 독립적 내용어의 의미적 차이를 논의하였으며, 셋째, Jo, In-hee(1993), Lee, Sook-hee(1992), 이영현(1996) 등은 이들 구조를 '사슬동사(serial verb)'로 간주하였고, 넷째, Kim, Jong-bok and Yang, Yae-hyung(2003)은 동일한 구조라 할지라도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조동사 복합술어(auxiliary verb complex predicate)'와 '사슬동사 복합술어(serial verb complex predicate)'로 구분하고 있다.

4) 동사가 2개 연결될 때 앞에 오는 동사를 '선행동사(V<sub>1</sub>)', 뒤에 오는 동사를 '후행동사(V<sub>2</sub>)'라고 지칭하겠다.

## 2.2 사슬동사의 동사연결 구성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아'를 매개로 한 동사연결을 세 가지 유형<sup>5)</sup>으로 분류하였다. 두 동사의 결합이 형태·통어적인 특성을 보이는 '보조동사 구성', 두 동사가 형태적으로 합해져 하나의 동사를 이루는 '합성동사 구성', 그리고 두 문장의 접속으로 인해 동사가 인접하여 나타나는 '접속 구성'이 바로 그것이다(강현화 1998). 본 연구에서는 호광수(2003)의 용어-보조용언 구성, 합성용언 구성, 접속용언 구성-를 따르되,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 세 가지로 분류하겠다.

### 2.2.1 보조동사 구성

보조동사 구성은 '선행동사(V<sub>1</sub>) + -어/아 + 후행동사(V<sub>2</sub>)'의 구조에서 후행동사로서 선행동사에 의존적이며 어휘적 의미가 확대되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통사 구성을 하고 있다(박선옥 2005). 즉, 후행동사가 보조동사(V<sub>2</sub>)로써, 한국어의 보조동사<sup>6)</sup>는 독립적인 서술어로서의 기

5) 강현화(1998)는 그의 연구에서 기존의 유형 분류 기준만으로는 동사연결의 다양한 단계를 보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동사연결을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여 재분류하였다. 선·후행 동사가 문장 내의 선행 성분에 의미역을 할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네 가지-V<sub>2</sub>가 의존적인 구성, V<sub>1</sub>이 의존적인 구성, 복합적인 구성, 통어적 구성-로 동사연결 유형을 나누었다. 즉, '합성용언 구성'을 V<sub>1</sub>이 의존적인 구성, 복합적인 구성으로 세분화하였다.

6) 손세모들(1996: 37-69)은 한국어의 보조동사에 대한 설정근거로-1) 홀로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구문론적 의존성, 2) 대응형에 의한 비대칭성, 3) 두드러진 문법성-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 근거 때문에 보조동사는 항상 선행동사(V<sub>1</sub>)와 함께 나타나고, 두 번째 근거인 보조동사만의 대응화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어휘적 성분만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하다/이러하다/저러하다' 등의 대동사에 의한 보조동사만의 대응화가 불가능하다.

a) 철수는 밥을 먹어 보았다.

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연결어미 '-어/아'와 함께 본동사(선행동사) 뒤에 위치하여 의미의 보조자 역할-의미의 첨가-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어 문법서에 후행동사(V<sub>2</sub>)가 보조동사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은 최현배(1937)에서부터이다. 최현배(1937: 502-533)에서 보조동사는 “으뜸되는 풀이씨의 아래에서 그것을 도와서 월의 풀이씨를 완전하게 하는 움직임”으로 정의되고, “아니하다, 말다, 만들다, 되다, 가다, 보다, 쌓다” 등의 동사 형태가 보조동사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보조동사는 ‘싶다’, ‘지다’, ‘대다’ 등과 같이 본래부터 보조용언으로만 쓰이는 것도 있으나, ‘보다’, ‘버리다’, ‘두다’, ‘주다’ 등과 같이 대부분은 선행동사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호광수 2003).

고영근·구본관(2008: 101-103)은 보조동사를 크게 ‘시제나 동작상과 관련된 것’, ‘사동이나 피동과 관련된 것’, ‘부정과 관련된 것’, ‘양태(modality)와 관련된 것’ 등 문법 범주들과 관련해서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연결어미 '-어/아'로 연결되는 보조동사만을 예문과 함께 살펴보자. 먼저 ‘시제나 동작상과 관련된 것’에는 ‘완료’, ‘진행’, ‘보유’, ‘시행’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들이 있다.

(5) ‘완료’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

a. (-어/아) 내다, 예: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내었다.

b) 나도 그래 보았다.

c) \*나도 밥을 먹어 그랬다.

따라서 a)의 선행동사 ‘먹다’를 대응한 b)문장은 맞지만, 보조동사만을 대응한 c)는 비문이 된다. 세 번째 근거는 보조동사가 어휘적 의미와는 다른 ‘진행, 완료, 피동, 사동’ 등의 문법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웅(1975)은 보조동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선행동사 없이 후행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하는가를 들고 있다. 그 밖에도 보조동사의 구별 기준을 제시한 대표적인 견해에는 남기심·고영근(1993), 김석득(1992), 서정수(1990), 김기혁(1987), 김용석(1983) 등이 있다.

b. (-어/아) 버리다, 예: 나는 사과 세 개를 다 먹어 버렸다.

예문 (5a)의 '내다'와 (5b)의 '버리다'는 시제나 동작상의 의미 중 '완료'를 나타내는 보조동사(V<sub>2</sub>)로 선행동사의 의미를 보조해준다.

(6) '진행'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

a. (-어/아) 가다, 예: 이제 일이 다 끝나 간다.

b. (-어/아) 오다, 예: 점점 날이 밝아 온다.

예문 (6a)의 '가다'와 (6b)의 '오다'는 '진행'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이다.

(7) '보유'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

a. (-어/아) 두다, 예: 책을 서가에 꽂아 두었다.

b. (-어/아) 놓다, 예: 책을 책상 위에 엎어 놓았다.

c. (-어/아) 가지다, 예: 그 책을 읽어 가지고 오세요.

예문 (7a)의 '두다', (7b)의 '놓다', (7c)의 '가지다'는 선행동사(V<sub>1</sub>)-꽂다, 엎다, 읽다-에 '보유'의 의미를 첨가한다.

(8) '시행'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

(-어/아) 보다, 예: 새 옷을 입어 보았다.

예문 (8)의 후행동사(V<sub>2</sub>) '보다'는 '시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다음으로 '사동이나 피동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를 살펴보자. 연결어미 '-어/아'로 연결되는 보조동사에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가



있다.

(9) '피동'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

(-어/아)지다, 예: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예문 (9)의 보조동사 '지다'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보조동사들은 대체로 본동사와 띄어 쓰지만 '지다'의 경우 붙여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은 '양태(modality)와 관련'된 보조동사들로, '짐작'과 '강제'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가 있다.

(10) '짐작'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

(-어/아) 보이다, 예: 그는 건강해 보인다.

예문 (10)의 보조동사 '보이다'는 본동사의 뒤에서 '짐작'의 의미를 부여한다.

(11) '강제'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

(-어/아) 대다, 예: 그는 나를 놀려 대곤 했다.

예문 (11)의 보조동사 '대다'의 경우는 '강제'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이다.

마지막으로 '봉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에는 아래의 예문 (12)와 같이 '주다/드리다'가 있다.

(12) '봉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

(-어/아) 주다/드리다, 예: 아이를 위해 바람개비를 만들어 주었다.  
다./할머니를 위해 밥을 지어 드렸다.

## 2.2.2 합성동사 구성<sup>7)</sup>

이 구성의 특징은 선행동사(V<sub>1</sub>)나 후행동사(V<sub>2</sub>)가 각각으로는 문장의 다른 성분(의미역<sup>8)</sup>)을 할당할 수 없으며 반드시 V<sub>1</sub>·V<sub>2</sub>가 하나로 합쳐져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조동사 구성과 구별된다(강현화 1998). 선행동사와 후행동사가 본래에는 서로 독립성을 가진 어휘였으나 둘이 하나로 녹아 붙어 하나의 서술 기능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호광수 2003).

(13) a. 동생이 책을 한권 가져왔다.

b. 내 말 알아들었니?

예문 (13a)에서 ‘가져오다’는 ‘가지다’와 ‘오다’ 두 동사가 결합한 사슬동사이다. 두 동사는 원래 서로 독립성을 가진 어휘였으나 하나로 결합하여 하나의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지다’와 ‘오다’는 독립적으로 문장에서 의미적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13b)의 ‘알아듣다’ 또한 ‘알다’와 ‘듣다’가 하나로 결합하여 ‘이해하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

7) 손세모돌(1996)의 구별기준을 적용하면 ‘합성동사 구성’은 1) V<sub>2</sub>가 홀로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 2) V<sub>1</sub>과 V<sub>2</sub>의 선·후행 성분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3) V<sub>1</sub>이 V<sub>2</sub>의 방법 또는 양태를 나타내고 V<sub>2</sub>가 어휘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8) 하나의 절 또는 문장에서 각 논항의 의미역을 할당하는 기능을 하는 서술어를 ‘핵어(head)’라고 한다. 두 서술어가 결합된 사슬동사 구성에서 핵심 내용 핵어가 V<sub>1</sub>과 V<sub>2</sub>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문장 구성 유형이 달라지게 되는데, V<sub>1</sub>이 핵심 내용 핵어이면 ‘보조동사 구성’이 되고, V<sub>1</sub>과 V<sub>2</sub> 모두에 있거나 V<sub>2</sub>에 있으면 ‘접속동사 구성’이 된다. ‘합성동사 구성’은 V<sub>1</sub>과 V<sub>2</sub>가 자립성을 가지고 결합한 것이 아니라 두 성분이 하나로 결합되어 굳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핵어로만 나타나게 된다(호광수 2003: 89).

므로, 합성동사 구성에 해당된다. 따라서 합성동사 구성은 세 유형 중에서 두 동사간의 관계가 가장 합성적이고 긴밀하다.

합성동사 구성에 해당하는 사슬동사에는 ‘걸쳐두다, 가져오다, 굶아터지다, 굶아먹다, 들어먹다, 따먹다, 뜯어먹다, 빨아먹다, 말아먹다, 베어먹다, 잘라먹다, 집어먹다, 파먹다, 걸어치우다, 누워먹다, 누워지내다, 갈라서다, 구워삶다, 기어오르다, 깔아몽개다, 끌어넣다, 끌어들이다, 날아가다, 넘어서다, 덮어씌우다, 덮어두다, 돌려놓다, 돌아보다, 돌아서다, 붙여넣다, 집어삼키다, 추켜올리다, 추켜세우다 등’이 있다(강현화 1998: 171).

### 2.2.3 접속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의 경우, 핵심 내용 핵어는  $V_1$ ,  $V_2$  모두 또는  $V_2$ 에 있지만,  $V_1$ 과  $V_2$ 가 자립성을 가지고 결합되었기 때문에 결합이 일어나면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어를 공유하게 된다(호광수 2003: 99).

(14) a. 나는 사과를 깎아 먹었다.

a'. 나는 사과를 깎아 (나는) (사과를) 먹었다.

예문 (14a)에서 ‘깎아 먹다’는 ‘깎다’와 ‘먹다’가 결합된 사슬동사로, (14a)와 같이 주어인 ‘나’를 공유한다. 그리고 접속동사 구성의 선행동사( $V_1$ )와 후행동사( $V_2$ )는 각각 독립적인 의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래의 예문 (15)와 같이 두 문장으로 분리시켜도 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다.

(15) a. 영희는 화병에 꽃을 다듬어 꽃았다.

a'. 영희는 꽃을 다듬다.

영희는 화병에 꽃을 꽃다.

즉, 접속동사 구성에서 후행동사( $V_2$ ) '꽃다'는 본동사이며, 단독으로 동사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접속동사 구성은 선행동사와 후행동사의 분리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동사연결 유형이다.

이상으로 사슬동사의 동사연결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여러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각 유형을 명확히 구분 짓는 일은 쉽지 않다.<sup>9)</sup> 하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에 있어서, 사슬동사를 이루고 있는 동사들( $V_1, V_2$ )의 특징과 의미적 핵심이 번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슬동사를 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으로 구분하여 그 패턴을 조사해 본다.



---

9) 김석득(1992: 669-671)에서는 '도움풀이씨 구조, 합성풀이씨 구조, 이중풀이씨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 구성간의 변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손세모들(1996: 47-69)은 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의 구별기준으로-1) 보조동사의 논항과의 무관성, 2) '-서' 등 어휘 요소의 삽입 여부에 의한 내적 비분리성, 3) 문장 대응형과의 직접 결합 가능성, 4) 선행동사까지의 분리 대응, 5) 동일 형식의 선행동사 사용 가능성, 6) 보조동사의 연속 사용 가능성, 7) 의사 분열문 형성 가능성- 7가지를 제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 제 3장 한국어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패턴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동사연결 구성-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으로 나누고, 각 유형이 어떠한 패턴으로 번역되었는지 분석해본다. 먼저 3.1에서는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 패턴에 대해 살펴보고, 3.2에서는 각 동사연결 구성별로 어떠한 세부 번역 패턴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 3.1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 패턴

사슬동사 예문 150개를 분석한 결과 크게 세 개의 번역 패턴을 보였다. 사슬동사를 이루고 있는 '선행동사(V<sub>1</sub>)와 후행동사(V<sub>2</sub>) 중 어느 한 동사만 번역하여 나타낸 경우',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하여 나타낸 경우', 그리고 '두 동사가 결합되어 나타내는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가 그것이다.

첫째, 예문 (16)은 사슬동사의 두 동사 V<sub>1</sub>, V<sub>2</sub> 중 의미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동사만을 번역하고, 나머지 한 동사는 생략하여 나타낸 경우이다.

- (16) a. 아버지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엄마와 헤어진 지하철 서울역으로 다시 가보았으나 엄마는 없었다고 했다. (엄마, p. 20)
- b. Father got off at the next stop and went back to Seoul Station, but Mother wasn't there any more. (Mother, p. 11)

예문 (16a)의 '가보다'는 '가다(V<sub>1</sub>)와 '보다(V<sub>2</sub>)'가 연결된 사슬동사로, 후

행동사(V<sub>2</sub>) ‘보다’는 2.2.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시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이다. 따라서 (16b)에서 의미적인 보조자 역할만을 하는 ‘보다’는 생략하고, 선행동사(V<sub>1</sub>) ‘가다’만을 ‘go’로 번역하였다.

둘째, 예문 (17)은 두 동사 V<sub>1</sub>, V<sub>2</sub>의 의미를 모두 번역하여 나타낸 경우이다.

- (17) a. 어느날부턴가 엄마는 방에 떨어진 수건을 **집어 걸었고**, 식탁에 음식이 떨어지면 얼른 집어냈다. (엄마, p. 26)
- b. At one point, she **grabbed** a towel from the floor and **hung** it **up**, and when food dropped on the table, she picked it up quickly. (Mother, p. 17)

예문 (17a)의 사슬동사 ‘집어 걸다’는 두 동사 ‘집다(V<sub>1</sub>)’와 ‘걸다(V<sub>2</sub>)’가 독립적인 의미 기능을 하는 ‘접속동사 구성’으로, (17b)에서 두 동사를 각각 ‘grab’과 ‘hang up’으로 번역하였다. 두 동사 모두에 의미역을 할당하는 접속동사 구성의 경우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셋째, 다음 예문 (18)은 V<sub>1</sub>, V<sub>2</sub> 두 동사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두 동사가 결합된 의미를 나타낸 경우로, 제 3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 (18) a. 식구들이 모이게 되면 며칠 전에 새 김치를 담그고, 시장에 나가 고기를 **끓어오고**, 치약과 칫솔들을 준비했다. (엄마, p. 11)
- b. A few days before everyone came down, she would make fresh kimchi, go to the market to **buy** beef, and stock up on extra toothpaste and toothbrushes. (Mother, p. 3)

예문 (18a)를 보면, 사슬동사 ‘끊어오다’는 ‘끊다’와 ‘오다’가 결합되어 ‘사다’라는 제3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므로 ‘합성동사 구성’이다. (18b)에서 번역된 동사 ‘buy’는  $V_1$ ,  $V_2$  중 어떠한 동사를 나타내지 않고, 두 동사가 결합하여 나타내는 제 3의 의미 ‘사다’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로 보았다.

이렇게 사슬동사 예문 150개를 분석한 결과,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패턴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 사슬동사의 번역 패턴 및 빈도

한국어 \ 영어	한 동사만 나타냄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	제 3의 의미를 표현	합계
사슬동사	71(47.3%)	46(30.7%)	33(22.0%)	150(100%)

사슬동사 150개의 영어번역문 중 예문 (16)과 같이  $V_1$ ,  $V_2$  중 ‘한 동사의 의미만을 번역’하여 나타낸 경우는 71개(47.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예문 (17)처럼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한 경우는 46개(30.7%)로 나타났으며, 예문 (18)에서 살펴본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는 33개(22%)의 빈도를 보였다.

이렇게 발견된 세 개의 번역패턴—한 동사의 의미만을 번역,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를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2에서는 사슬동사의 각 ‘동사연결 구성’별로 이러한 번역패턴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각 패턴의 세부 번역패턴을

분류해 보고, 그 특징을 분석해 본다.





### 3.2 동사연결 구성별 번역 패턴

이 절에서는 ‘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의 사슬동사 동사연결 구성별로, 3.1에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번역패턴 ‘V<sub>1</sub>, V<sub>2</sub> 중 어느 한 동사만 번역하여 나타낸 경우’,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하여 나타낸 경우’, 그리고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번역된 형태와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패턴을 세분화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 본다.

#### 3.2.1 보조동사 구성

사슬동사 150개 중 ‘보조동사 구성’은 52개가 발견되었다. 이것의 번역 패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보조동사 구성의 번역 패턴 및 빈도

한국어 \ 영어	한 동사만 나타냄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	제 3의 의미를 표현	합계
보조동사 구성	35(67.3%)	12(23.1%)	5(9.6%)	52(100%)

세 번역패턴 중 본동사(V<sub>1</sub>) ‘한 동사의 의미만을 번역’한 경우가 35개 (67.3%)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9) a. 새로 등장한 라면은 그동안 너의 엄마가 만들어준 모든 음식

의 맛을 무력화시켰다. (엄마, p. 24)

- b. When this new delicacy called ramen entered your lives, it overwhelmed every dish Mother had ever **made**. (Mother, p. 15)

예문 (19a)의 사슬동사 '만들어주다'는 본동사(V<sub>1</sub>) '만들다'와 봉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V<sub>2</sub>) '주다'가 결합한 것이다. (19b)에서 V<sub>1</sub> 한 동사만을 'make'로 번역하였다. 이는 보조동사의 보조적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 생략하고, 의미면에서 더 중요한 본동사(V<sub>1</sub>)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한 경우가 12개(23.1%)로 나타났다.

- (20) a. 빨래는 일주일에 한번 당숙모에게 갖다주면 **빨아준다**고 써어 있었다. (엄마, p. 21)
- b. He wrote that he took his laundry to Father's cousin's wife once a week, and that she **washed** it **for** him, ..... (Mother, p. 13)

예문 (20a)의 사슬동사 '빨아주다'는, 본동사(V<sub>1</sub>)인 '빨다'와 봉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V<sub>2</sub>) '주다'가 결합된 '보조동사 구성'이다. (20b)에서 '빨다'는 동사 'wash'로, '주다'는 전치사 'for'로 번역되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가 5개(9.6%)로 나타났다.

- (21) a. 어머니라는 말이 너무 정중하니 엄마로 **바꿔보**라고 했다. (엄

마, p. 14)

- b. he says that “mother” is too formal, and tells you to **write** “mom.” (Mother, p. 5)

예문 (21a)는 본동사(V<sub>1</sub>) ‘바꾸다’와 시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보다’가 결합한 ‘보조동사 구성’으로, (21b)에서 두 동사의 의미를 지니지 않은 제 3의 동사 ‘write’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다음은 각각의 패턴이 어떠한 세부 패턴을 보이는지 예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A. 한 동사만 번역<sup>10)</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조동사 구성 52개 중 V<sub>1</sub> ‘한 동사만 번역’된 경우는 35개(67.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보조동사가 사슬동사 구조 안에서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므로, 대부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그 세부패턴을 살펴본 결과 ‘동사로 번역, 의역을 가미한 표현, 부사로 번역’ 세 가지 세부패턴으로 나눌 수 있었다.

10) 가. ‘완료’를 나타내는 보조동사(V<sub>2</sub>) ‘버리다’ 5개 – ‘끊겨버리다, 떠나버리다,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출발해버리다’ – 모두 생략되고, 선행동사(V<sub>1</sub>)만 나타내었다.

- a) 엄마는 인파에 떠밀려 아버지 손을 놓쳤고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지하철이 **출발해버린** 것이다. (엄마, p. 18)  
b) Mom was pulled away from Father in the crowd, and the subway **left** as she tried to get her bearings. (Mother, p. 9)

나. ‘시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V<sub>2</sub>) ‘보다’ 18개 중 14개가 예문 (16)과 같이 생략되고, 선행동사(V<sub>1</sub>)만 나타내었다.

다. ‘봉사’를 나타내는 보조동사(V<sub>2</sub>) ‘주다’ 11개 중 7개가 예문 (19)와 같이 생략되고, 선행동사(V<sub>1</sub>)만 나타내었다.

### A-1. 동사로 번역

본동사(V<sub>1</sub>) ‘한 동사만을 번역’한 경우 35개 중, ‘동사’로 번역된 경우가 31개(8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22) a. 엄마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재현하듯 이모는 너와 함께 토끼 밥을 주었고 너의 머리를 세 갈래로 **땋아주었다**. (엄마, p. 32)
- b. As if she were re-creating her childhood with her sister, your aunt fed rabbits with you and **braided** your hair. (Mother, p. 23)

예문 (22a)의 사슬동사 ‘땋아주다’는 본동사(V<sub>1</sub>)인 ‘땋다’와 붕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V<sub>2</sub>)인 ‘주다’가 연결된 ‘보조동사 구성’이다. 이것의 번역은 (22b)에서 볼 수 있듯이 본동사(V<sub>1</sub>)인 ‘땋다’만을 ‘동사’인 braid로 번역하였다.

### A-2. 의역<sup>11)</sup>을 가미한 표현

보조동사 구성의 세부 번역패턴 중, ‘의역’을 가미하여 V<sub>1</sub> 한 동사를 표현한 경우는 3개(8.6%)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세부패턴은 다른 연결 구성의 ‘한 동사만을 번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패턴이다.

- (23) a. 큰오빠는 너에게 문구를 더 **보충해보라**고 했다. (엄마, p. 14)
- b. Hyong-chol tells you to **write** something **more** on the flyer.

11)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문맥상 적절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단어로 풀어서 설명한 경우를 ‘의역’을 가미한 표현으로 보았다.

(Mother, p. 5)

예문 (23)에서는 선행동사(V<sub>1</sub>) '보충하다'와 시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V<sub>2</sub>) '보다'가 결합한 사슬동사를, '의역'을 가미하여 'write more'로 나타내었다. 이는 본동사(V<sub>1</sub>)인 '보충하다'의 문맥상 의미를 고려하여, '더 쓰다'라는 의미로써 두 어휘 'write more'로 표현한 것이다.

### A-3. 부사로 번역

세 번째 세부 번역패턴인 '부사로 번역'은 본동사(V<sub>1</sub>)를 '부사'로 나타내고 보조동사는 생략한 경우이다. 이 또한 보조동사 구성에서만 발견된 세부패턴으로, 전체 35개중 1개(2.8%) 발견되었다.

- (24) a. 여주인공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연하의 남자와 함께 다른 도시로 떠나버린 엄마에 대해 원망을 늘어놓고 험담을 하면서도 나중엔 그래도 난 엄마가 보고 싶어, ..... (엄마, p. 47)
- b. She would complain that her mother took all her life savings and went **off** with a younger man to a different city, but then, at the end, would say, 'But I miss my mother; .... (Mother, p. 37)

예문 (24a)는 선행동사(V<sub>1</sub>) '떠나다'와 완료를 나타내는 보조동사(V<sub>2</sub>) '버리다'가 결합한 사슬동사이다. 이것은 영어번역문 (24b)에서 부사 'off'로 번역되었다. 즉, 본동사(V<sub>1</sub>)인 '떠나다'만을 부사 'off'로 번역하고, 보조동사 '버리다'는 생략하였다.

## B. 두 동사 모두 번역

보조동사 구성 52개 중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한 경우 12개 (23.1%)는 ‘보조동사의 의미 나타낼 수 있는 표현,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 한 동사에 의역을 가미한 표현’ 세 가지 세부 번역패턴으로 분류된다.

### B-1. 보조동사의 의미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이 세부패턴은 ‘보조동사 구성’에서만 발견된 유형이다. 즉, 2장에서 살펴본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양한 방법<sup>12)</sup>으로 나타내었다. 보

12) 가. 보조동사(V<sub>2</sub>)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완료시제’를 사용한 경우가 4개 발견되었다. ‘보유’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인 ‘놓다’-‘숨겨놓다, 벗어놓다’와 ‘진행’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인 ‘오다’-‘그래오다, 봉합해오다’-가 그것이다. (예문 (25) 참조)

나. ‘피동’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V<sub>2</sub>)인 ‘지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동태’를 사용한 경우가 1개 발견되었다.

a) 편지를 읽어주는 너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엄마의 귀는 토끼처럼 쫓긋 **세워져** 있었다. (엄마, p. 22)

b) Your mother's ears would **be cocked** like a rabbit's, trying not to miss a single word. (Mother, p. 13)

다. 보조동사(V<sub>2</sub>)가 상태의 지속(손세모들 1996: 158)을 나타내는 ‘있다’인 경우 6개 중 3개가 동사 ‘be’로 나타내었다.

a) 네가 천안문광장 하늘에 **떠 있는** 연들을 보고 있을 때, 너의 엄마는 지하도에서 체념한 듯 주저앉으며 네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른다. (엄마, p. 19)

b) As you watched the kites **floating** in the sky in Tiananmen Square, your mother might have collapsed in the passageway in despair, calling out your name. (that **were** 생략) (Mother, p. 10)

라. ‘봉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V<sub>2</sub>)인 ‘주다’의 경우 예문 (26)과 같이 전치사 ‘for’로 나타낸 경우가 2개 발견되었다. 보조동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긴 하지만, 부사·전치사를 사용하여 나타냈으므로 세부패턴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에 넣었다.

조동사 구성의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 12개 중, 8개(66.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중에서 다음 예문 (25)는 '완료시제'를 사용하여 보조동사를 번역한 경우로, 총 4개가 발견되었다.

- (25) a. 순간순간 모면하듯 **봉합해온** 일들이 툭툭 불거지고 결국은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우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 (엄마, p. 15)
- b. The things that **had been suppressed**, that had been carefully avoided moment by moment, became bloated, and finally you all yelled and smoked and banged out the door in a rage. (Mother, p. 7)

예문 (25a)의 사슬동사 '봉합해오다'는 본동사(V<sub>1</sub>)인 '봉합하다'와 진행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V<sub>2</sub>) '오다'가 결합한 '보조동사 구성'이다. 선행동사(V<sub>1</sub>)인 '봉합하다'는 동사 'suppress'로 나타내고, 보조동사(V<sub>2</sub>)인 '오다'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완료'시제를 써서 나타내었다. 그 외 나머지 3개 사슬동사 '숨겨놓다, 벗어놓다, 그래오다'는 각각 'have hidden, have taken off, have been doing that'으로 번역되었다.

#### B-2.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

두 동사 V<sub>1</sub>, V<sub>2</sub> 모두 번역한 경우 중 한 동사는 동사로 나타내고, 나머지 '한 동사는 부사나 전치사로 번역'한 경우가 있었다. 전체 12개 중 3개(25%)가 발견되었는데,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26) a. 엄마가 너의 큰오빠를 사랑하는 방식은 학교에서 야간자습을

마치고 돌아온 오빠에게만 라면을 끓여주는 일이었다. (엄마, p. 24)

- b. Mother's love for Hyong-chol was such that she used to **make** a bowl of ramen only **for** him, when he came home after remaining at school till late at night to study. (Mother, p. 15)

예문 (26a)는 본동사(V<sub>1</sub>) '끓이다'와 봉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V<sub>2</sub>)인 '주다'가 결합한 '보조동사 구성'이다. 이것의 영어번역문인 (26b)를 보면, 선행동사 '끓이다'는 동사 'make'로, 보조동사 '주다'는 전치사 'for'로 번역하였다.

### B-3. 한 동사에 의역을 가미한 표현

보조동사 구성의 번역패턴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 12개 중, 한 동사는 동사로 번역하고, 나머지 '한 동사는 의역을 가미'하여 나타낸 경우가 1개(8.3%) 나타났다.

- (27) a. 무엇에 반응하기에는 힘이 달려 보였다. (엄마, p. 32)

- b. She **appeared** to be **too weak** to react. (Mother, p. 22)

예문 (27a)를 보면, 사슬동사 '달려 보이다'는 선행동사(V<sub>1</sub>)인 '달리다'와 짐작을 나타내는 보조동사(V<sub>2</sub>) '보이다'가 결합된 '보조동사 구성'이다. (27b)에서 보조동사(V<sub>2</sub>) '보이다'는 동사 'appear'로 번역하였고, 본동사(V<sub>1</sub>)인 '달리다'는 문맥상 '체력이 약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의역'을 가미하여 두 개의 어휘 'too weak'으로 표현하였다.



### C. 제 3의 의미 표현

보조동사 구성 중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 5개(9.6%)는 '의역을 가미한 표현, 품사가 바뀌는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 C-1. 의역을 가미한 표현

보조동사 구성의 사슬동사가 나타내는 '제 3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문맥상 적절한 의미로 의역하여 나타낸 경우가 5개 중 3개(60%) 발견되었다.

- (28) a. 너는 바닷가의 햇볕 아래서 해독할 수 없는 점자를 손으로 짚어보다가 너에게 문자를 처음 가르쳐준 이는 누구였나를 생각했다. (엄마, p. 48)
- b. **Tracing** your finger along the indecipherable Braille in the sun, you wondered who had taught you to read. (Mother, p. 38)

예문 (28a)는 본동사(V<sub>1</sub>)인 '짚다'와 시행을 나타내는 보조동사(V<sub>2</sub>)인 '보다'가 결합한 '보조동사 구성'인 사슬동사이다. 사슬동사 '짚어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문맥상에서 '손으로 더듬다'의 의미로 의역하여 동사 'trace'로 번역하였다.

#### C-2. 품사 바뀌는 경우

품사가 바뀌어 번역되는 경우는 '보조동사 구성'에서만 나타난 세부패턴 유형이다.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 5개 중 2개(40%)가 해당되었

다.

- (29) a. 자금성과 천안문광장을 이어주는 길도 공사중이었다. (엄마, p. 19)
- b. The road between the Forbidden City and Tiananmen Square was under construction, too. (Mother, p. 10) (전치사)

예문 (29a)의 사슬동사 ‘이어주다’는 선행동사(V<sub>1</sub>)인 ‘잇다’와 봉사의 의미를 갖는 보조동사(V<sub>2</sub>) ‘주다’가 연결된 ‘보조동사 구성’이다. 영어번역문 (29b)를 보면, 전치사 ‘between’으로 번역되었는데, 두 동사 ‘잇다’와 ‘주다’ 중 어느 것의 의미도 나타내지 않으므로 제 3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로 보았고, ‘전치사’로 품사가 바뀌어 번역되었으므로 ‘품사가 바뀌는 경우’로 세부 패턴화하였다.

보조동사 구성의 번역패턴을 정리해보면, 세 번역패턴 중 선행동사(V<sub>1</sub>) ‘한 동사만을 번역’한 경우가 전체 52개 중 35개(67.3%)로 월등히 높다. 이는 보조동사(V<sub>2</sub>)가 사슬동사의 구조 안에서 본동사(V<sub>1</sub>)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한 경우가 12개(23.1%),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가 5개(9.6%)로 나타났다. 각각의 세부번역을 살펴보면, 한 동사만 번역된 경우는 ‘동사로 번역, 의역을 가미한 표현, 부사로 번역’으로 나눌 수 있었고,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는 ‘보조동사의 의미 나타낼 수 있는 표현,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 한 동사에 의역을 가미한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는 ‘의역을 가미한 표현, 품사가 바뀌는 경우’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보조동사 구성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난 세부 번역패턴은, 한 동사만 번역된 경우에서

‘의역을 가미한 표현, 부사로 번역’과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의 ‘보조동사의 의미 나타낼 수 있는 표현’, 그리고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에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였다.

다음으로 ‘합성동사 구성’의 번역패턴을 살펴보자.

### 3.2.2 합성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은 사슬동사 150개 중 78개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이것의 번역패턴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합성동사 구성의 번역 패턴 및 빈도

한국어 \ 영어	한 동사만 나타냄	제 3의 의미를 표현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	합계
합성동사 구성	30(38.5%)	27(34.6%)	21(26.9%)	78(100%)

‘합성동사 구성’의 번역 역시 ‘한 동사의 의미만을 번역’한 경우가 30개 (38.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V_1$ 과  $V_2$ 중 의미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동사만을 번역한 경우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30) a. 너와 방 안에서 귤을 **까먹고** 있던 엄마가 그 목소리를 듣고 화닥닥 방문을 열고 나갔다. (엄마, p. 35)
- b. Mother, who was inside **eating** tangerines with you, threw open the door and ran out. (Mother, p. 26)

예문 (30a)의 사슬동사 ‘까먹다’는 ‘까다’와 ‘먹다’가 결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의미적 기능을 하는 ‘합성동사 구성’이다. 번역은 좀 더 의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V<sub>2</sub>인 ‘먹다’만을 ‘eat’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가 27개(34.6%)로 다른 동사연결 구성에 비해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합성동사 구성의 경우 V<sub>1</sub>과 V<sub>2</sub>가 각각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두 동사가 결합하여 제 3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1) a. 그때 엄마의 말을 너는 알아들었을까. (엄마, p. 27)

b. Did you **understand** her words then? (Mother, p. 18)

예문 (31a)의 사슬동사 ‘알아듣다’는 선행동사(V<sub>1</sub>) ‘알다’와 후행동사(V<sub>2</sub>) ‘듣다’가 결합하여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번역은 이러한 제 3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understand’로 표현하였다.

세 번째로 V<sub>1</sub>, V<sub>2</sub>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한 경우가 21개(26.9%)로 나타났다.

(32) a. 엄마가 갈만한 곳이라도 찾아다니고 싶었으나 이 도시에서 엄마 혼자 갈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다. (엄마, p. 10)

b. You want to **go look for** her in places where you think she might be, but you know how she is: she can't go anywhere by herself in this city. (Mother, p. 2)

예문 (32a)의 사슬동사는 ‘찾다’와 ‘다니다’가 연결된 ‘합성동사 구성’으로, 영어번역문 (32b)에서 각각 ‘look for’과 ‘go’로 번역되었다.

다음은 ‘합성동사 구성’의 각각의 패턴이 어떠한 세부 패턴을 보이는지 예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A. 한 동사만 번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성동사 구성 78개 중 ‘한 동사만 번역<sup>13)</sup>’된 경우는 30개(38.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 패턴은 30개 모두 V<sub>1</sub>, V<sub>2</sub> 중 한 동사만 ‘동사로 번역’하고, 나머지 한 동사는 생략되어 나타났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3) a. 라면가닥보다 국물이 더 많은 그릇을 **받아들고** 흐뭇해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 (엄마, p. 24)

b. You would be so pleased, each **holding** a bowl filled with more soup than noodles. (Mother, p. 16)

13) 가. 합성동사 구성인 사슬동사 중 예문 (30)과 같이 후행동사(V<sub>2</sub>)가 ‘먹다’인 경우-‘사먹다, 집어먹다, 까먹다, 찌먹다, 받아먹다’- 5개 중, 두 동사(V<sub>1</sub>, V<sub>2</sub>) 모두 번역된 예문 (36)의 ‘받아먹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동사만 번역’되었다.

나. 아래 예문과 같이 후행동사(V<sub>2</sub>)가 ‘취다’인 합성동사 구성 3개-‘ 옮겨취다, 바꿔취다, 받아취다’-는 모두 ‘한 동사만 번역’되었다.

a) 그러곤 얼른 오른손으로 연필을 **바꿔취었다**. (엄마, p. 49)

b) Then you **switched** the pencil back to your right. (Mother, p. 39)

다. 18개 발견된 후행동사(V<sub>2</sub>)가 ‘가다/오다’인 합성동사 구성 중 다음과 같이 ‘가다/오다’가 생략되고, 선행동사(V<sub>1</sub>)만을 번역한 경우가 8개였다.

c) 깨죽을 **쑤어갔는데** 맛나게 먹드라, (엄마, p. 33)

d) I **made** sesame porridge, and she had a good appetite. (Mother, p. 24)

예문 (33a)의 사슬동사 ‘받아들다’는 선행동사(V<sub>1</sub>)인 ‘받다’와 후행동사(V<sub>2</sub>) ‘들다’가 결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단일한 동작을 나타내는 ‘합성동사 구성’이다. (33b)를 보면 두 동사 중 의미적으로 중심에 있는 ‘받다(V<sub>2</sub>)’ 한 동사만을 ‘동사’ hold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 B. 제 3의 의미 표현

합성동사 구성 78개 중 ‘제 3의 의미를 번역’한 경우는 27개(34.6%)로 나머지 두 동사연결 구성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합성동사 구성’의 경우 두 동사 V<sub>1</sub>, V<sub>2</sub>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의미적 기능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제 3의 동사 존재, 의역을 가미한 표현’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각각의 세부패턴을 살펴보자.

### B-1. 제 3의 동사 존재

한국어 사슬동사의 제 3의 의미를 표현할 경우, 영어에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제 3의 동사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았다. 합성동사 구성에서만 독자적으로 8개(29.6%)가 발견되었다.

- (34) a. 너는 그 집의 셋째였으므로 네 위의 오빠들이 집을 떠날 때마다 엄마가 겪는 작별의 슬픔과 고통과 염려를 지켜보았다. (엄마, p. 23)
- b. As the third of five children, you **witnessed** Mother's sorrow and pain and worry when each of your older brothers left home. (Mother, p. 14)

예문 (34a)의 사슬동사 ‘지켜보다’는 ‘지키다(V<sub>1</sub>)’와 ‘보다(V<sub>2</sub>)’가 결합하여

새로운 제 3의 의미를 나타내는 '합성동사 구성'이다. '지켜보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witness'가 영어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 외에도 2개 발견된 '알아듣다'는 'understand'로, '가져가다'는 'take'로, '올려놓다'는 'cradle'로, '비틀어짜다'는 'wring', '알아보다'는 'identify', 그리고 '생각해내다'는 'remember'로 번역되었다.

## B-2. 의역을 가미한 표현

'의역을 가미한 표현'은 사슬동사가 나타내는 제 3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문맥상 적절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단어로 풀어서 설명한 경우를 말한다. 전체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 27개 중 19개(70.4%)가 발견되었다.

- (35) a. 우물이 앞마당에 있어서 물을 **끌어오기**만도 힘든 일이었는데 뒤꼍을 가득 채운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다 닦았다. (엄마, p. 23)
- b. Because the well was in the front yard, it was cumbersome to **bring** water to the back, but she washed each and every jar. (Mother, p. 14)

예문 (35a)의 사슬동사 '끌어오다'는 '걷다(V<sub>1</sub>)'와 '오다(V<sub>2</sub>)' 두 동사가 원래는 독립성을 가진 어휘이지만 하나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적 기능을 하는 '합성동사 구성'이다. 그리고 (35b)를 보면 'bring'으로 번역하였는데 선행동사인 '걷다'를 나타내지도, 후행동사인 '오다'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슬동사 '끌어오다'의 문맥상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오다'로 의역하여 표현한

경우이다.

### C. 두 동사 모두 번역

합성동사 구성 중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한 경우 21개(26.9%)는 '두 동사로 번역,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 한 동사에 의역을 가미한 표현'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각각의 세부패턴을 살펴보자.

#### C-1. 두 동사로 번역

사슬동사를 이루고 있는 두 동사  $V_1$ ,  $V_2$ 를 '모두 동사로 번역'한 경우이다. 전체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 21개 중 4개(19.1%)로 나타났다.

- (36) a. 이따금 엄마가 밥을 김에 싸서 내밀면 너는 어릴 때처럼 가만히 **받아먹었다**. (엄마, p. 38)
- b. When Mother wrapped a piece of seaweed around some rice, as she did when you were little, and held it out, you **took** it and **ate** it. (Mother, p. 28)

예문 (36a)의 사슬동사 '받아먹다'는 '받다( $V_1$ )'와 '먹다( $V_2$ )'가 하나로 연결된 '합성동사 구성'으로, 영어번역물에서 각각 두 동사 'take'와 'eat'으로 번역되었다.

#### C-2.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sup>14)</sup>

14) 합성동사 구성의 선행동사( $V_1$ )가 '건너다'인 경우-'건너가다, 건너보다'-2개 모두 '건너다'를 부사·전치사인 'over'로 나타내었다.

- a) 네가 천안문광장으로 **건너가려**던 그때에 너의 엄마는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인파 속



V<sub>1</sub>, V<sub>2</sub>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하였지만, 한 동사는 동사로 번역하고 나머지 한 동사는 '부사나 전치사'로 번역한 경우이다. 전체 21개 중 15개(71.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 (37) a. 네가 엄마를 생각하며 혼자 웃을 때가 있는데, 그날의 엄마, 늙은 엄마가 어리광 섞인 목소리로 오빠! 외치며 마루를 **뛰어내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간의 외삼촌에게 달려가던 그 모습이 연상될 때이다. (엄마, p. 36)
- b. ..., your aging mother **jumping down** from the porch and running across the yard to your uncle, shouting 'Brother!' as if she were a child - .... (Mother, p. 26)

예문 (37a)의 '뛰어내리다'는 '뛰다'와 '내리다'가 하나로 결합된 '합성동사 구성'의 사슬동사이다. 번역문 (37b)에서 선행동사(V<sub>1</sub>) '뛰다'는 동사 'jump'로, 후행동사(V<sub>2</sub>) '내리다'는 부사 'down'으로 번역되었다.

### C-3. 한 동사에 의역을 가미한 표현

앞에서 계속 언급된 '의역'을 사용한 표현으로, V<sub>1</sub>, V<sub>2</sub> 중 한 동사는 동사로 나타내고, 나머지 '한 동사에 의역을 가미'하여 표현한 번역방법이다. 전체 21개 중에서 2개(9.5%) 발견할 수 있었다.

- (38) a. 엄마는 맥이 빠진 채 숨을 **몰아쉬었다**. (엄마, p. 31)
- b. Mother **breathed laboriously**, exhausted. (Mother, p. 22)

---

에 우두커니 서 있었을까. (엄마, p. 19)

- b) When you were about to **head over** to Tiananmen Square, was your mother standing in the middle of the crowd, lost, being jostled? (Mother, p. 10)

예문 (38a)를 보면, 사슬동사 ‘몰아쉬다’는 ‘몰다(V<sub>1</sub>)’와 ‘쉬다(V<sub>2</sub>)’ 두 동사가 결합한 ‘합성동사 구성’이다. ‘쉬다(V<sub>2</sub>)’는 동사 ‘breathe’로 번역되었고, ‘몰다(V<sub>1</sub>)’는 문맥상 힘겹게 숨을 쉬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역을 가미하여 ‘힘겹게’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 ‘laboriously’로 표현하였다.

합성동사 구성의 번역패턴을 정리해보면, V<sub>1</sub>, V<sub>2</sub> 중 의미상 더 중요한 ‘한 동사만을 번역’한 경우가 전체 78개 중 30개(38.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가 27개(34.6%)로 다른 동사연결 구성에 비해서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V<sub>1</sub>, V<sub>2</sub>가 각각 의미적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V<sub>1</sub>과 V<sub>2</sub>가 결합하여 제 3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합성동사 구성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가 21개(26.9%)로 나타났다. 각각의 세부번역을 살펴보면, 한 동사만 번역된 경우는 모두 ‘동사로 번역’되었고,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는 ‘제 3의 동사 존재, 의역을 가미한 표현’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는 ‘두 동사로 번역,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 한 동사에 의역을 가미한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합성동사 구성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난 세부 번역패턴은,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에서 ‘제 3의 동사 존재’였다.

마지막으로 ‘접속동사 구성’의 번역패턴을 살펴보자.

### 3.2.3 접속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은 사슬동사 150개 중 20개가 해당되었다. 이것의 번역패턴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접속동사 구성의 번역 패턴 및 빈도

한국어 \ 영어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	한 동사만 나타냄	제 3의 의미를 표현	합계
접속동사 구성	13(65.0%)	6(30.0%)	1(5.0%)	20(100%)

‘접속동사 구성’의 경우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가 전체 20개 중 13개(6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접속동사 구성의 두 동사  $V_1$ 과  $V_2$ 가 자립성을 가지고 각각 독립적인 의미기능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39) a. 너의 눈과 마주치자 엄마가 머리의 수건을 벗어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p. 51)
- b. When your eyes met, she took the towel off her head and waved it, smiling brightly. (Mother, p. 41)

예문 (39a)의 사슬동사 ‘벗어 흔들다’는 두 동사 ‘벗다( $V_1$ )’와 ‘흔들다( $V_2$ )’가 결합된 것으로, 두 동사 모두에 의미역을 할당하는 ‘접속동사 구성’이다. (39b)에서 ‘벗다’는 ‘take off’로, ‘흔들다’는 ‘wave’로 두 동사 모두 번역하였다.

그리고  $V_1$ 과  $V_2$  중 의미상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동사만을 번역’한 경우가 6개(30.0%)로 나타났다.

- (40) a. 너는 대답 대신 어둠속에서 떨어진 끈을 붙잡듯 엄마의 두툼한

손을 찾아 잡았다. (엄마, p. 38)

- b. Instead of answering, you **grabbed** Mother's hand, desperately, as if you were grasping for a lifeline in the darkness, .... (Mother, p. 29)

예문 (40a)의 사슬동사 '찾아 잡다'는 '찾다(V<sub>1</sub>)'와 '잡다(V<sub>2</sub>)'가 연결된 '접속동사 구성'이다. (40b)에서 후행동사(V<sub>2</sub>) '잡다'만을 'grab'으로 번역하였다.

세 번째,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는 접속동사 구성에서 1개(5.0%)로 드물게 발견되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1) a. 너의 가족들은 큰오빠 집에 아버지를 두고 서둘러 헤어졌다.  
(엄마, p. 15)
- b. Leaving Father at Hyong-chol's house, you all **head** home.  
(Mother, p. 6)

예문 (41a)의 사슬동사 '서둘러 헤어지다'는 두 동사 '서두르다(V<sub>1</sub>)'와 '헤어지다(V<sub>2</sub>)'가 결합된 '접속동사 구성'이다. (41b)에서 두 동사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제 3의 표현인 'head'로써 표현하였다.

다음은 '접속동사 구성'의 각각의 패턴이 어떠한 세부 패턴을 보이는지 예문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A. 두 동사 모두 번역

앞의 두 동사연결 구성과는 달리, 접속동사 구성의 경우 사슬동사를 이루고 있는 동사 V<sub>1</sub>과 V<sub>2</sub>가 독립성을 가지고 결합되었으므로 '두 동사

모두 번역'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접속동사 구성 20개 중 '두 동사 모두 번역'된 경우는 13개(65%)로, 그 세부패턴을 살펴본 결과 '두 동사로 번역,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 접두사 사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 A-1. 두 동사로 번역

접속동사 구성의 두 동사  $V_1$ 과  $V_2$ 를 각각 '두 동사로 번역'한 경우이다. 전체 '두 동사 모두 번역' 13개 중 7개(53.8%)로 나타났다.

- (42) a. 너의 말은 주로 밥은 먹었는데, 아픈 데는 없는데, 아버지는 어떤가, 감기 조심하라, 돈을 부쳤다,라는 것들이었고 엄마의 말은 김치를 **담가 부쳤다**, 꿈자리가 사납다, 쌀을 부쳤다, 청국장을 부쳤다, 익모초를 달여 부쳤다, 택배기사가 전화할 테니 전화기 꺼놓지 마라,는 것들이었다. (엄마, p. 46)
- b. Mother talked about how she **made** kimchi and **sent** some, that she had strange dreams, that she sent rice, or fermented bean paste, that she'd brewed motherwort to send you, and that you shouldn't turn off your phone because the messenger would call before delivering all these packages. (Mother, p. 36)

예문 (42a)의 사슬동사 '담가 부치다'는 선행동사( $V_1$ )인 '담그다'와 후행동사( $V_2$ )인 '부치다'가 결합된 것으로, 각각 독립적인 의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접속동사 구성'이다. (42b)에서 '담그다'는 동사 'make'로, '부치다'는 동사 'send'로 번역되었다.

### A-2.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

접속동사 구성의 경우도 한 동사는 동사로 번역하고, 나머지 한 동사는 '부사나 전치사로 번역'한 경우가 있었다. 전체 13개 중 5개(38.5%)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3) a. 페이지마다 무수하게 찍힌 흰 점들이 11월의 햇빛을 받아 반  
짝거렸다. (엄마, p. 48)
- b. The white dots on the pages **sparkled in** the sunlight.  
(Mother, p. 38)

예문 (43a)의 '받아 반짝거리다'는 선행동사(V<sub>1</sub>)인 '받다'와 후행동사(V<sub>2</sub>)인 '반짝거리다'가 연결된 '접속동사 구성'의 사슬동사이다. 영어번역문 (43b)에서 '반짝거리다(V<sub>2</sub>)'는 동사 'sparkle'로 번역되고, 선행동사 '받다(V<sub>1</sub>)'는 전치사 'in'으로 번역되었다.

### A-3. 접두사 사용

'접두사가 사용된 경우'는 접속동사 구성의 번역에서만 발견된 세부 유형이다. V<sub>2</sub>는 동사로 나타내고 V<sub>1</sub>을 '접두사'를 사용하여 나타낸 경우로, 전체 13개 중 1개(7.7%) 발견되었다.

- (44) a. 38이라는 숫자를 36이라고 고쳐 적으려는데, (엄마, p. 11)
- b. When you're about to **rewrite** "38" as "36", (Mother, p. 2)

예문 (44a)의 사슬동사 '고쳐 적다'는 선행동사(V<sub>1</sub>) '고치다'와 후행동사(V<sub>2</sub>)가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연결된 '접속동사 구성'이다. 후행동

사 '적다'는 동사 'write'로 번역되었고, 선행동사(V<sub>1</sub>) '고치다'가 접두사 're-'로 번역되었다.

### B. 한 동사만 번역

접속동사 구성 20개 중 '한 동사만 번역'된 경우는 6개(30%)로, 이는 두 동사 V<sub>1</sub>, V<sub>2</sub> 중 의미적으로 중요한 한 동사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 세부패턴을 살펴본 결과, 합성동사 구성과 마찬가지로 6개 모두 '동사로 번역'하였다.

- (45) a. 영화 『마지막 황제』의 늙은 푸이가 어린 시절을 보낸 자금성에 돌아와 어린 관광객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옥좌에 숨겨놓은 귀뚜라미 상자를 꺼내 보이던 장면이 떠올랐다. (엄마, p. 19)
- b. You remembered the scene in The Last Emperor where the elderly Puyi returns to the Forbidden City, his childhood home, and **shows** a young tourist a box he had hidden in the throne. (Mother, p. 10)

예문 (45a)의 사슬동사 '꺼내 보이다'는 선행동사(V<sub>1</sub>)인 '꺼내다'와 후행동사(V<sub>2</sub>)인 '보이다'가 결합된 '접속동사 구성'이다. 두 동사 중 의미적으로 중요한 '보이다(V<sub>2</sub>)'만을 동사 'show'로 번역하였다.

### C. 제 3의 의미 표현

접속동사 구성 중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 1개(5%)는 모두 '의역을 가미한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즉, 두 동사 V<sub>1</sub>, V<sub>2</sub> 중 어느 동사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의역'을 가미하여 제 3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이다.

- (46) a. 너의 가족들은 큰오빠 집에 아버지를 두고 서둘러 헤어졌다.  
 (엄마, p. 15)
- b. Leaving Father at Hyong-chol's house, you all **head** home.  
 (Mother, p. 6)

예문 (46a)의 ‘서둘러 헤어지다’는 ‘서두르다(V<sub>1</sub>)’와 ‘헤어지다(V<sub>2</sub>)’가 결합된 사슬동사이다. (46b)를 보면, 제 3의 의미인 ‘향하다’로 의역하여 동사 ‘head’로 나타내었다.

접속동사 구성의 번역패턴을 정리해보면, V<sub>1</sub>, V<sub>2</sub>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한 경우가 전체 20개 중 13개(65%)로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동사가 사슬동사 안에서 독립적인 의미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동사만을 나타낸 경우’가 6개(30%),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가 1개(5%)였다. 각각의 세부번역을 살펴보면,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는 ‘두 동사로 번역,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 접두사 사용’으로 나눌 수 있었고, 한 동사만 번역된 경우는 모두 ‘동사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제 3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는 ‘의역을 가미한 표현’으로 나타났다. 접속동사 구성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난 세부 번역패턴은,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에서 ‘접두사 사용’한 경우이다.

지금까지 3장에서는 사슬동사의 영어번역의 패턴을 크게 세 가지—한 동사만 번역, 두 동사 모두 번역, 제 3의 의미를 표현—로 나누어 보고, 각 동사연결 구성(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별로 어떠한 세부 번역패턴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세 가지 번역패턴 중에서 ‘한 동사만 번역한 경우’가 전체 150개 중에서 71개(47.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이 '두 동사 모두 번역한 경우'로 46개(30.7%), '제 3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가 33개(22%)였다. 동사연결 구성별로 살펴보면, 보조동사 구성(52개)의 경우 '한 동사만을 나타낸 경우'가 35(67.3%)로 가장 많았으며, '두 동사 모두 번역한 경우'가 12개(23.1%),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가 5개(9.6%)였다. 그리고 합성동사 구성(78개)도 '한 동사만을 나타낸 경우'가 30개(38.5%)로 가장 많았으며,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가 27개(34.6%), '두 동사 모두 번역한 경우'가 21개(26.9%)였다. 접속동사 구성은 '두 동사 모두 번역한 경우'가 13개(65%)로 가장 많았으며, '한 동사만을 나타낸 경우'가 6개(30%), '제 3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가 1개(5%)였다. 그리고 각 동사연결 구성별로 세 가지 번역패턴의 세부 번역패턴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 제 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사슬동사가 영어로 번역될 때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슬동사가 잘 발달되어 있는 신경숙(2009)의 한국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 사슬동사 예문 150개를 가지고, 이것의 영어번역물인 김지영(2012)의 *Please Look After Mother*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분석해보았다. 우선 사슬동사를 이루고 있는 두 동사  $V_1$ ,  $V_2$ 의 특성과 연결구성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 연결구성에 따라 사슬동사를 세 가지 유형 ‘보조동사 구성, 합성동사 구성, 접속동사 구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사슬동사 전체로 보았을 때, 그 번역패턴은 크게 ‘ $V_1$ ,  $V_2$  중 한 동사만 번역, 두 동사 모두 번역, 제 3의 의미 표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한 동사만 번역’한 경우가 전체 사슬동사 150개 중 71개(47.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사슬동사의 동사연결 구성별로 그 패턴을 살펴보면, ‘보조동사 구성’의 경우 보조동사( $V_2$ )가 사슬동사의 구조 안에서 본동사( $V_1$ )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보조동사를 생략하고 선행동사( $V_1$ ) ‘한 동사만을 번역’한 경우가 전체 52개 중 35개(67.3%)로 월등히 높았다. ‘합성동사 구성’의 경우는 전체 78개 중 30개(38.5%)가  $V_1$ ,  $V_2$  중 ‘한 동사만 번역’하였으며,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가 27개(34.6%)로 다른 동사연결 구성에 비해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합성동사 구성의 경우  $V_1$ 과  $V_2$ 가 결합하여 제 3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접속동사 구성’의 경우 두 동사  $V_1$ 과  $V_2$ 가 자립성을 가지고 각각 독립적인 의미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동사를 모두 번역’한 경우가 전체 20개 중 13개

(6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세 개의 번역패턴은 번역된 형태와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사슬동사 전체로 보았을 때, '한 동사만 번역'은 '동사로 번역한 경우, 의역을 가미하여 표현한 경우, 부사로 번역한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두 동사의 의미를 모두 번역'하여 나타낸 경우는 '두 동사로 번역한 경우, 한 동사를 부사·전치사로 번역한 경우, 한 동사에 의역을 가미한 표현, 보조동사의 의미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접두사를 사용하여 나타낸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 3의 의미를 표현'한 경우는 '제 3의 동사가 존재하는 경우, 의역을 가미하여 나타낸 경우, 품사가 바뀌는 경우' 세 가지가 발견되었다.

동사연결 구성별로 이러한 세부패턴 유형을 살펴보면 다양한 번역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각 동사연결 구성에서 독자적으로 발견된 세부패턴은 '보조동사 구성'의 경우 '한 동사만 번역'에서 '의역을 가미하여 표현한 경우, 부사로 번역한 경우'와 '두 동사 모두 번역'에서 '보조동사의 의미 나타낼 수 있는 표현'과 '제 3의 의미 표현'에서 '품사가 바뀌는 경우'이다. 그리고 '합성동사 구성'의 경우는 '제 3의 의미 표현'에서 '제 3의 동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다른 두 동사연결 구성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세부 번역패턴이었다. 그리고 '접속동사 구성'에서는 '두 동사 모두 번역'에서 '접두사를 사용하여 나타낸 경우'가 다른 번역패턴과 달리 나타났다.

## 병렬언어자료

- 신경숙. 2009. 『엄마를 부탁해』. 서울: 창작과 비평.
- Shin, Kyung-sook. 2012. *Please Look After Mother* (Kim, Chi-young, Trans.). London: Phoenix.

## 참 고 문 헌

- 강현화. 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 김기혁. 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 김용석. 1983.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배달말』 8, 1-33.
- 남기심·고영근. 1993.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박선옥. 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서울: 역락.
- 서정수. 1990. 『국어문법의 연구 2』. 서울: 한국문화사.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손세모들. 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이봉선. 2004. 사슬동사의 두 구조. 『영어영문학연구』 30(1), 203-213.
- 이영현. 1996. 한국어 사슬동사의 몇 가지 특성. 『언어』 21(4), 1137-1157.
- 이영현. 2004. 사슬동사의 하위범주와 아원자적 의미기술. 『언어과학』 12(1), 160-181.
- 이영현. 2005. 단순동사와 사슬동사의 상적 분류와 의미. 『언어학』

13(3), 17-36.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서울: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호광수. 2003. 『국어 보조용언 구성 연구』. 서울: 역락.

Jo, In-hee. 1993. *A Unified Semantic Analysis of Serialization: Intensionality of Even Individuation*. Ph. D. Dissertation, Ball State University.

Kim, Jong-bok and Yang, Jae-hyung. 2003. Parsing Complex Predicate in the Korean LKB System. 『한국언어정보학회 2003학술대회 발표논문집』.

Lee, Sook-hee.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Yang, In-seok. 1978. Pragmatics of Going-Coming Compound Verbs in Korean. In Chin-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49-68. Columbia, South Carolina: Hornbeam Press.

